

광주, 산업부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사업 선정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국비 95억원 확보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공모에서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 구축사업이 선정돼 국비 95억2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지역이 보유한 혁신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전남·충남도와 협력해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국비 95억 2000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 152억 5000만 원을 투입, 융복합의료제품

의 인허가 중심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59억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광주시는 최신 디지털 기술인 가상현실(VR) 기술을 의료산업에 적용해 시뮬레이션 지원 플랫폼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광주시의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가 총괄 주관하고, 광주테크노파크·전남대학교병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참여한다. 전남도는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충남도는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한국플라텍특성화대학이 참여한다.

융복합의료산업은 바이오기술·정보기술·나노기술·로봇기술·의료기술 등 혁신적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의료기기 중심의 산업을 의미한다. 통상 기존 의료제품 중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개념의 제품을 복합 또는 조합된 경우를 융복합의료제품으로 지정한다.

제품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시제품 제작 ▲소재·공정개발 지원 ▲제품·공정 시뮬레이션 ▲제품 고도화 지원 ▲제품3D스캔 지원 ▲시험·평가·인증 지원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사업단 내 자체수령으

로 제품 출시를 단축시키고, 글로벌 시장 진출과 선점을 주도한다.

그 동안 영세 중소기업은 인허가·마케팅 등의 어려움으로 시제품 완성 뒤 제품 출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광주·전남·충남이 보유한 자원을 연계, 인허가 중심의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해 융복합의료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수혜기업의 국내 매출 증가 157억 7000만 원, 신규고용 90여 명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기능산업국장은 "다양한 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융복합의료제품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주민이 제안한 광주 문제 민·관·공·학이 함께 푼다

기후위기·지역공동체 등 주민이 제안한 지역문제에 대해 시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대학이 힘을 합쳐 해결한다.

광주시는 27일 '2023 광주지역문제 해결플랫폼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 등 시민 체감이 높은 지역사회의 공동의제를 선정하고, 함께 실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공동정책위원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주재했다. 행정·의회·공공기관·시민단체·대학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역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지자체·공공기관·대학·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



‘고창 도계-장성’ 국지도 개통 전남도는 장성과 전북 고창을 잇는 국가지원지방도 15호선의 시설개량공사를 마무리하고 27일 개통식을 통해 이날 오후 5시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제공

전남 ‘골프 중심지 도약’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한다

전남 골프장 39곳 운영...13곳 신규 조성 추진

전남도가 골프 중심지 도약을 통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

2022년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총 514곳에 전남에는 39곳이 운영 중이다.

전남은 지리적 특성상 해양성 기후로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고 다 지역 대비 산림 비율이 낮아 골프장 건설에 최적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한겨울 온화한 기후 등 천혜의 자연조건

을 활용한 골프 스포츠 중심지 조성을 위해 ‘골프장 건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계획에 따라 수요 맞춤형 골프장 건설과 실질적 골프 대중화, 지역주민과 사업 시행자 갈등 해소 등을 추진한다. 사업시행자와 인·허가권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골프장 건설 지원 전담조직(TF) 구성·운영’부터 행정절차 개선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허가 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또 주민·시행사·허가권자 간 협

의체 구성과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다 지역 방문객 유치에 위한 이용요금 인하 등을 중점 추진한다.

현재 전남에서 신규로 건설을 추진 중인 골프장은 총 13곳이다.

이 중 4곳은 투자자가 계획 수립과 함께 토지 매입을 진행 중이며, 9곳은 도와 시·군에 인·허가 신청서가 접수돼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골프산업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16조 원으로 스포츠산업(80조) 중 단일종목 최대인 20%를 차지하고 있다. /김도기 기자

광주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확대 남구·북구, 복지부 공모 선정...내달부터 4개 자치구 시행

광주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수행 지자체로 남구와 북구가 선정됐고 27일 밝혔다.

광주시는 2019년 6월 서구를 시작으로 현재 광산구 등 2개 지자체에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남구와 북구에서도 사업을 추진한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아도 한 달 이상 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 복귀·

정착을 돕는다.

특히 의료급여관리사, 협력의료기관 케어팀이 의료·돌봄·식사·이동지원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한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에 남구·북구가 선정됨에 따라 업무 절차, 시스템 운영 방법 교육, 서구·광산구 수범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강화한다. /조선주 기자

장마철 막힌 빗물받이에 침수 피해 대응 광주 시내 7만여개 설치에 50명 관리 불과...시민의식 절실

우수관 악취를 막기 위해 깔개 등으로 빗물받이를 덮어오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려온 행위가 장마철 침수 피해를 키우는 주민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행정 당국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물리적인 청소와 함께 개방형 빗물받이 교체 사업에 나서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지만 근본 해결책인 시민 의식 고취가 절실하다는 당부도 뒤따른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집계하고 있는 지역 내 빗물받이 갯수는 7만 4913개다.

빗물받이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 주요 도로와 인도 주변에 설치되는 설비로 빗물을 우수관으로 보내는 관로의 입구 역할을 도맡는다. 시내에 설치된 우수관은 시간 당 84mm의 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는 대체로 빗물받이를 통해 유입된 빗물들이다.

광주시는 장마철 시작에 앞서 남구 백운광장과 북구 신안동 등 지역

내 침수 취약지 37곳에 대한 점검과 청소가 나왔다. 점검 결과 대부분 빗물받이가 깔개 등에 덮여있거나 내부가 쓰레기로 가득 차있었다. 보행자들이 무단투기한 쓰레기들이 빗물받이 안에 쌓여 악취가 빈번한 상황에 이를 막고자 깔개로 덮어놓으면서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침수 취약지 내 뿐만 아니라 지역 빗물받이 대부분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장마 첫날인 지난 26일 오후 서구 광전동 한 사거리에서는 빗물이 고여 일대가 수시간 침수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장 조치 결과 낙엽이 빗물받이 일부를 막고 있었던 탓에 배수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7만여 개가 넘는 빗물받이를 관리하는 인원이 광주시 하수관리팀과 자치단체별 유관 부서원 등 50여명에 불과해 모든 빗물받이를 관리하기란 여의치 않다. /김도기 기자

광주, 직업전환교육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선정 조선이공대·광주보건대·동강대와 협력 ‘광주시 빛 누리’ 추진

광주시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3 직업전환교육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공모에 광주시와 조선이공대·광주보건대·동강대 연합체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직업전환교육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전문대학이 광역자치단체와 협력, 지역특화산

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수준별 디지털전환 역량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신중장년과 지역 산업체 재직자의 직종 전환과 경력 재설계 교육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은 광주시 빛누리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2년간 총 4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조선주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호남매일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광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